논현동건설회관리모델링

## 신영환 신성건설 회장

# “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 요람을 만드는 상징적인 공사 ”

“건설회관과의 거듭되는 인연은 신성건설의 깊은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하여의미가매우깊습니다. ”

1965년 태평로 건설회관, 1985년 논현동 건설회관 건설에 이어 올해 다시 논현동건설회관리모델링을수행하고있는신성건설신영환회장은“ 건설회관리모델링은 한국 건설산업의 미래 요람을 만드는 상징적인공사 ”라고말한다.

1층로비와2, 3층회의실을리모델링하는 신성은 자유로운 동선 확보와 함께 건설산업의 비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건설회관의 명성을 한 층 더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설회관의입구 캐노피에 위로 뻗어 올라가며 앞으로는 열린 이미지를 주는 조형성을 가미한 것이 눈에 띈다. 각종 세미나 및 행사가 열리는 2, 3층 회의실의 경우 열린 공간의 자유로움과 함께 천장에 원형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급 호텔에버금가는품격을갖추었다.

신영환회장은“ 3층은휴식및관람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풍성한 공간미가 느껴지도록 했으며, 2층 대회의실의 경우는 돔형의천장설계로공간볼륨감과시선확장감을 극대화시켜 국내 최고 수준의 회의실로 태어나게된다 ”고밝혔다.

국토를 정비하여 경제 자립의 틀을 다지는 것이급선무이던과거, 건설인들은장인정신으로 오늘날 건설 한국의 위상을 일으켰다. 신성건설은당시어려운 국가경제를 감내하며 척박한 건설산업의 기틀을 다진 업체들중하나이다. 또한, 당시의건설업체

들중현재까지몇살아남지않은‘ 정통기업 ’으로성장해온모범사례로불린다.

건설이라는단일 업종 한 가지만으로54년간기업을탄탄하게유지해온성공비결에대해신영환회장은“ 창업이래지금까지 신용, 성실, 인화라는사훈을 지켜 온 직원들이 힘의 원천 ”이라고 단언한다.“ 신용과 성실로고객의신뢰를확보하고, 인화단결로어려운건설환경을극복하여기업 성장을뒷받침해준직원들이 곧성공신화의 시작이며끝이자전부였다 ”는신회장자신도 내년이면 입사 40년을 맞게 되는‘ 신성인 ’(신용, 성실, 인화)의한사람이다. 그는“ 급변하는시대에평생직장이라는말이퇴색되어가고있지만신성의비전은성실한 직원을 대우하고자 하는 사측과 회사와 일체가 되어성장해가고자하는직원들의조화에서나온다 ”고말한다.

신영환 회장은 신성건설의 저력을 살려 다음 세대에게 신성건설의 기틀을 물려주기 위하여 ‘2015년 업계 리더 도약 ’을 비전으로 세우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 업계리더도약은부문별로차별화된 신기술 및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 및 해외 건설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로성장의발판을마련하는것을골자로 한다. 신성건설은그 선행 과제로 원가관리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와 더불어 수익성 위주의 물량 확대를 통한 성장 에너지확보를추진중에있다.

성장에너지확보와관련, 신회장은“ 사업을 다각화, 전문화하여 어떤 종류의 사업도 소화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인력 관리 및 육성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생산성과전문성을제고하고, 신규사업분야진출을위한 역량을강화하고있다 ”고말한다.

현재 신성은 건설 기술의 경연장으로 급부상한 중동의 심장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지역과 동남아, 아프리카등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 수주 활동을 펼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부상하기 위한 단계를밟아가고 있다. 그는“ 건설회관이세계속건설한국의위상을대변하는상징성을띠는것과같이신성도 한국 건설산업의 역사와 비전을 상징하는건설명가로서재도약할것 ”이라고포부를밝힌다.

정숙진 · 기자 · sjeong@cak.or.kr